

유교 담론의 자장과 순국의 관계성*

— 한말 · 일제강점기의 자결순국을 중심으로 —

서정화(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조교수)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자결순국 기제로서의 유교 담론 |
| 2. 자결순국의 유형과 역사적 연원 | 3.1. 문명인의 자부와 자존의식 |
| 2.1. 자결순국의 유형 | 3.2. ‘士’ 의식의 각성과 실천 |
| 2.2. 자결순국의 역사적 연원 | 3.3. 舍生取義와 도의 실현 |
| |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한말 ·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자결순국의 유형과 역사적 연원을 탐색했는데, 자결순국은 유교 담론과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논했다.

유교문화권에서는 왕조가 바뀌거나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 자결을 통해 투쟁 의지를 드러낸 사례가 빈번하고, 자결은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아 후대에도 칭송될 정도로 면면히 이어졌다. 한말 · 일제강점기의 자결순국자는 대략 120여 명이며, 이들의 자결순국은 전 시대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말 · 일제강점기 자결순국의 유형은 주로 단식, 음독, 자해, 투신,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시대의 사례가 흔치 않은 음독을 제외하고, 자결 유형의 전범이 되는 인물과 국난에 처한 유학자들이 결행했던 자결의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단식자결은 백이와 사방득이 대표 인물로, 임진왜란 때 이양원·능성구씨, 병자호란 때 최효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신자결은 굴원과 노중련이 대표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박지화, 김천일, 고종후 등의 자결을 거론할 수 있다. 자해자결은 왕축과 전횡이 대표 인물로, 청나라가 강화도를 함락시켰을 때 자결한 김상용, 송시영 및 이씨부인, 나씨부인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한말·일제강점기 자결순국은 역사적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자결순국자들의 언급과 행위는 다음과 같은 유교 담론과 상관성이 깊다. 첫째, 청나라 이후 중화문명의 중심을 자처하던 조선의 문화적 자존의식과 무관치 않다. 둘째, 국가의 위기에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지사 의식의 발로였다. 셋째, 의리를 실현하고 유가의 도를 보존하려는 의식의 소산이었다.

주제어 : 유교 담론, 자결순국, 한말·일제강점기, 문화적 자존, 지사 의식, 도의 보존

1. 서론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망했을 때 무장하여 투쟁하던 곳곳한 기세로 자결하던 교육을 통해 계몽하던 간에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같다. 국가를 부지하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귀하던 천하던 남자든 여자든 늙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해외에 있던 산속에 있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들의 희생은 자체로 고귀하다. 자결순국도 마찬가지이다. 단식하여 죽은 사람도 있고, 우물이나 바다에 투신한 사람도 있고, 독약을 먹은 사람도 있고, 칼로 찌른 사람도 있고, 기둥에 머리를 찢은 사람도 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자결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국가에 위협을 가한 대상에

게 항거했다.

알다시피 병인양요와 을미사변, 을사늑약과 병합, 일제강점기 동안 애국과 독립을 외치며 순국하거나 자결한 선현들이 많다. 자결은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자살과 의미가 같지만, 죽음의 동기나 영향을 고려하면 자살과 자결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자살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로 여겨진다면 자결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자결은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소통으로 여겨져 자결한 사람을 ‘열사’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죽음의 동기와 영향이 보통의 자살과 크게 다르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¹⁾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거나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 자결을 통해 자신의 투쟁 의지를 드러낸 사람들이 많다. ‘자결순국’을 거론할 때면 이들은 典故로 활용될 정도로 역사적 전통이 되었고, 시대를 내려오면서 후대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합리화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 적어도 동양, 특히 유교문화권에서는 어렵지 않게 자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서양의 사례는 이렇지 않은 듯하다. 국가가 존망에 처했을 때 결사항전하는 사례는 쉬이 찾을 수 있지만, 자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렇다면 자결은 유교문화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가. 유교의 어떠한 담론이 자결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거나 구현하는 기제로 작동한 것인가. 이 궁금증이 본고가 기획된 이유이다.

자결은 소극적 대항이라 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무장 투쟁을 할 수 없는 일개인이 결연히 행할 수 있는 항거 방식이다. 그럼에도 자결은 사회적 의미나 과급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 일제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에게는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적 각성을 촉구했다. 『매천야록』, 『기려수필』, 『유방집』, 『염재야록』 등에서 자결한 지식들의 편언척자까지 모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한말·일제강점기에 자결순국한 분들이 120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유가 사상의 자장 속에서 성장한 인물들이다. 지식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

1) 김기봉, 「‘노무현 신드롬’과 메멘토 모리」, 『철학과 현실』 82, 2009, 74면.(위키백과 재인용.<<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82%B4>>)

찬가지였다. 서양의 문화와 사상에 점차 그 자리를 내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천 년에 가까운 뿌리와 전통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결의 유형은 주로 단식, 투신, 자해, 음독이 주를 이룬다. 아래에서는 이 유형들의 역사적 연원을 살필 것이며, 그 근거가 되는 유교 담론들을 제시하면서 자결순국한 분들의 일화나 평가와 연계시켜 보려 한다.

2. 자결순국의 유형과 역사적 연원

2.1. 자결순국의 유형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말·일제강점기에 자결순국자는 120명인데,²⁾ 자결순국의 유형은 주로 단식, 음독, 자해, 투신,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자결 유형은 기록물에 따라 차이가 있고,³⁾ 특히 ‘자해 유형’은 단식이든

-
- 2) 한말·일제강점기 자결순국한 분들은 현재도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결순국자 명단이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 시기 자결순국자의 숫자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결순국자 명단은 1차 사료인 『기려수필』, 『염재야록』, 『유방집』과 오영섭, 김희곤, 박결순의 연구를 참고했으며, “독립유공자 공훈록”에서 기존 자료에 나오지 않은 자결순국자를 보완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언급했다라도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기재되지 않은 인물은 제외했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송상도 지음, 강원모 외 옮김, 『기려수필』 1~4, 문진, 2014; 趙熙濟 저, 金濬 譯, 『(抗日)독립운동을 증언한 念齋野錄』, 신아출판사, 2017; 조소양 지음, 이정원 옮김, 『유방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오영섭, 『한말 순국·의열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희곤, 『안동 유림의 자정순국 투쟁』,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11, 150~159면; 朴杰淳, 『安瀾의 현실인식과 자정 순국』, 『한국 근현대사 연구』 6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81-118면 공헌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공훈록(<http://e-grh.nipm.gov.kr/user/ContribMeritList.do?GoToCode=20002>) (검색일: 2020.9.17.)
- 3) 일례로 김영상의 경우 『기려수필』은 옥중 단식이라 하고 『염재야록』은 강물 투신이라 했으며, 이범진의 경우 공훈록은 권총 자결이라고 하고 『유방집』은 음독이라 했다.

음독이든 자결 자체가 자해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모호하다.⁴⁾ 그럼에도 본항은 자결순국자의 숫자와 유형을 파악하여 앞으로 전개할 논지의 전체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이 구분했으며, 이러한 구분이 자결의 다양한 방법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표1] 자결순국의 유형

단식 (18.33%)	孔致鳳, 金尙台, 金聲振, 金舜欽, 金永相, 金濟煥, 金澤鎭, 朴炳夏, 朴世和, 白麟洙, 柳道發, 劉秉憲, 柳秉禹, 李晚燾, 李鳳煥, 李中彥, 李賢求, 李興宰, 張基錫, 張泰秀, 趙章夏, 崔世允(이상 22명)
음독 (18.33%)	權氏(안동), 金奉學, 金奭鎭, 金聖興, 金容球, 宋秉璿, 宋秉珣, 柳健永, 柳臣榮, 劉某, 李奎應, 李冕宙, 李命羽, 李命宰, 李相哲, 李學純, 李漢應, 李鉉贊, 趙秉世, 崔宇淳, 洪萬植(이상 22명)
자해 (24.17%)	恭任, 權龍河, 金元範, 金奇順, 金志洙, 羅錫疇, 盧秉漢, 閔泳煥, 朴星煥, 潘夏慶, 石昌文, 孫承億, 孫亮燮, 孫學坤, 沈氏, 吳剛杓, 李慶煥, 李範晉, 李根周, 李性用, 李載允, 李柱煥, 鄭東植, 鄭在健, 鄭在洪, 韓榮泰, 洪範植, 洪承武, 黃奭(이상 29명)
투신 (8.33%)	金根培, 金道鉉, 金河洛, 朴能一, 薛鎭永, 申錫忠, 宋宙勉, 安瀟, 李承七, 黃瑗(이상 10명)
기타 (30.84%)	姜震遠, 高德鳳, 金聲天, 金世淳, 金氏, 金政煥, 金天述, 羅喆, 閔泳學, 閔致道, 朴匡, 朴道京, 朴享元, 朴春實, 朴致道, 裴氏, 白成欽, 徐一, 宋桂明, 宋道淳, 宋完明, 宋鍾奎, 申啓寬, 申明均, 安相義, 吳儀善, 尹德培, 尹鳳儀, 李德三, 李鳳鶴, 李聖瑞, 李元甫, 李太鉉, 任壽命, 張龍熙, 張鎭弘, 蔡相應(이상 37명)

단식자결의 장소는 크게 집과 감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에서 단식하는 경우에는 선영을 배알하고 유언을 남기고 절명시를 쓰기도 한다. 유도받은 국망 소식을 듣고 자결하기로 결심한 뒤 선대의 사당은 물론 선영을 배알하고, 친구들과도 하나하나 영결했다. 또 북쪽을 향해 4번 절한 뒤 절명시를 짓고, 조상의 신주를 땅에 묻은 뒤 나라를 찾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말라

4)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해 유형’은 단식, 음독, 투신을 제외한 자결, 곧 목을 매거나 칼로 찌르거나 권총을 쏘거나 기둥에 부딪치는 행위 등을 지칭함을 미리 밝혀둔다.

는 유언을 남겼다.⁵⁾ 한편 옥중 단식은 단식 자체가 녹록치 않았다. 김상태는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었는데, 그가 원수의 손에 옥을 당하기 싫다며 단식하자 일제는 기구로 입을 열게 한 뒤 억지로 먹여 며칠을 연명하게 했다.

음독자결은 이전 시기보다 한말 이후 많이 보이는 유형이다. 음독 사실만 기재되어 독약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김석진은 아편을 복용했고, 송병순이 순국할 당시 복어 알이 담긴 봉투가 베개 안에 있고 아편을 포장한 종이가 필통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흔치 않지만 이학순처럼 옥중에서 음독 자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해자결은 목을 매거나 칼로 찢러 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무관이나 의병들은 권총으로 자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1대대장이던 朴星煥(朴昇煥)은 1907년 군대 해산 명령이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품속에 있던 권총을 꺼내 자결했다. 이외에도 권총하는 국망 소식을 듣고 기둥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결했고, 김원범과 한영태는 옥중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했다.⁶⁾

투신자결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사례가 가장 적는데, 투신 장소는 주로 우물과 바다와 하천이다. 김도현은 국망 때 자결하려 했으나 부친이 생존하여 자신의 뜻을 결행하지 못하다가 부친상의 졸곡 뒤에 동해로 가서 천천히 바닷물로 걸어 들어가 자결했다. 김근배는 은사금을 거부하며 우물에 투신했고, 이승철은 절벽에서 투신했으며, 신석충은 체포된 뒤 이송 중에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했다.⁷⁾

기타 유형은 자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대종교 교주이던 나철은 도통을 金敎獻에게 물려준 뒤 閉門修道하다 목숨을 끊었고,⁸⁾ 을사늑약 후 최초로 순국한 평민 배씨는 통곡하

5) 송상도 지음, 앞의 책, 「유도발」. 본고에서 인용하는 한말·일제강점기 자결순국자의 일화는 대부분 『기려수필』을 참고하였다. 아래에서는 『기려수필』에 한해 강원도 외 번역본을 저본을 삼아 간략하게 출처를 밝히며, 원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참고하였다.

6) 김원범과 한영태의 사례는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공훈록 참조.

7) 신석충의 사례는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공훈록 참조.

8) 조소앙 지음, 앞의 책, 『유방집』, 「나인영전」.

다가 죽었으며, 백성흙은 고종 승하 후에 통곡하다가 죽었다. 민영학·박광·안상의 등은 추격을 당하던 중에 자결했고, 서일·신계관 등은 습격을 당한 뒤에 항복하지 않고 자결했으며, 박향원·송계명·이덕삼 등은 피체 직후에 자결했다.⁹⁾

[표2] 자결순국의 시기별 비율

시기	단발령	늑약 후	병합 후	고종 喪	20년대	30~40년대	미상	합계
인원	3	24	46	10	23	12	2	120
비율	2.5	20	38.33	8.33	19.17	10	1.67	100

[표2]는 자결순국의 시기를 단발령~을사늑약 전, 을사늑약~병합 전, 병합~고종 승하 전, 고종 승하~1920년, 1920년~1929년, 1930년~1945년까지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자결순국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강제병합 이후인데, 46건의 사례 중 37건이 1910년과 1911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국망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 사례가 많은 것이 외교권이 박탈당한 을사늑약과 1920년대이다. 특히 고종이 승하하고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자결순국이 많았고, 1920년대 23건의 절반인 12건이 1920년과 1921년에 이루어졌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열투쟁사』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동한 의사·열사들의 활동 상황을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을사늑약에서 3·1운동 이전, 두 번째는 3·1운동에서 1931년 만주사변, 세 번째는 만주사변 이후 8·15 해방까지이다.¹⁰⁾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자결순국자의 숫자는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의열투쟁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와 자결순국의 경향성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하겠다.

9) 민영학에서 이덕삼까지 사례는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공훈록 참조.

10) 오영섭, 앞의 책, 7면.

2.2. 자결순국의 역사적 연원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 각국 간의 전쟁과 신라의 통일, 고려시대의 요·금 및 원과의 전쟁,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할 때의 상황,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굵직한 격변의 시대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한말·일제강점기처럼 무기력하고 치욕적인 역사는 없었다. 이 때문에 한말·일제강점기에 자결순국자가 많이 나왔고, 그 유형은 크게 단식, 음독, 자해, 투신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한말·일제강점기에만 국한되는 특징인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자결순국이 평지돌출한 것이 아니라면 전 시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말·일제강점기와 동일한 조건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몇 가지 유사한 조건을 통해 자결순국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삼국 전쟁, 조선 개국, 임병양란 등은 국가의 위기가 극도에 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둘째, 조선으로 한정하자면 지식인들은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했고,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문화적 자장 속에서 성장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자결 유형의 전범이 되는 인물과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평가, 국난에 처한 선조들이 결행했던 자결의 실례를 제시하겠다. 다만 음독의 연원과 사례가 흔치 않아 단식, 자해, 투신의 사례만 거론하도록 한다.¹¹⁾

2.2.1. 단식자결의 연원

伯夷는 은나라 孤竹國의 왕자로, 주나라 武王이 은나라의 紂王을 토벌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듣지 않자 수양산에 들어가 고비를 뜯어먹다가 죽었다. 공자가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으나 사람들이 지금까지

11) 한말·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음독’의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아편과 같은 독약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 ‘不敢毀傷’의 인식이 더욱 강고했다는 점, 국가 자체가 이민족에게 송두리째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아닐까 한다.

칭찬한다.[伯夷叔齊餓於首陽之下，民到于今稱之。]”(『논어』 「계씨」)라고 논평한 이후로 고국을 위해 절의를 지킨 대표적 인물로 거론된다. 백이에 관한 일화로는 꽃꽂함과 지조¹²⁾, 부모의 명을 좇아 왕위를 양보하는 미덕¹³⁾ 등이 있지만 고국의 침탈에 저항하다 굶은 죽은 일화가 단연 우선시 되고 있다.

「麥薇歌」¹⁴⁾

殷之薇兮不可採兮 은 나라의 고비여 꺾을 수 없구나
 周之麥兮不可食兮 주 나라의 보리여 먹을 수 없구나
 無薇無麥我何食兮 고비도 없고 보리도 없구나
 箕聖已遠清聖已沒 기성은 이미 멀고 청성도 이미 죽었구나
 我安適兮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여말선초 禹玄寶의 「麥薇歌」로, 이 시의 소재인 보리와 고비는 망국의 한과 절의의 상징이다. 우현보는 이색, 정몽주와 정치적 동지이고, 손자는 공양왕의 부마였는데, 조선이 개국하던 무렵에는 정도전 일파에 의해 유배당하기도 했다. 고려가 망한 뒤에 우현보가 백이처럼 단식자결을 감행한 것은 아니지만, 망국의 신하로서 절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백이를 소환했다. 실제로 우현보의 절의는 조선이 건국한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우현보는 태종 이방원의 座主이고,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날 조짐을 이방원에게 알림으로써 이방원의 등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우현보는 이방원이 여러 차례 초빙했는데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¹⁵⁾

사방들은 원나라에 붙잡혀 연산에 이르렀는데 절의를 끌어대며 굴하지 않

12) 『맹자』, 「萬章下」, “伯夷目不視惡色，耳不聽惡聲，非其君不事，非其民不使，治則進，亂則退，橫政之所出，橫民之所止，不忍居也。”

13) 「伯夷列傳」(『史記』 권61)에 의하면, 백이는 부왕이 막내아들인 叔齊를 후계자로 세우려 하자, 숙제에게 왕위를 양보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14) 『丹陽禹氏三世文獻錄』 권4, 국립중앙도서관.

15) 우현보의 「맥미가」 및 절의에 대해서는 서정화, 「易東 禹倬家の 문학 연구」, 『한문학논집』 57, 근역한문학회, 2020, 49-51면 참조.

다가 죽었다. 만약 송나라가 망하지 않고 방득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면 어찌 방득의 의리가 벼슬할 만하지 않다고 이르겠는가.¹⁶⁾

인용문은 김상헌이 청나라에 항거한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되어 심양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왔는데, 인조 때 좌의정이 된 것은 의리에 혐의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黃景源이 답한 것이다. 황경원은 謝枋得의 일화를 인용하여, 송나라가 원나라에 망한 상황과 아직 망하지 않은 조선의 상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선을 재건하기 위해 벼슬하더라도 절의를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김상헌을 옹호했다.

황경원이 인용한 사방득은 중국 남송 말기의 문신으로, 송나라가 망하자 의병을 일으켰고 거사가 실패하자 閩中 지방에 은거했다. 그 후 원나라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고, 福建行省参政 魏天祐가 연경에 강제로 끌고 왔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고 단식하다가 죽었다.¹⁷⁾ 사방득은 백이와 함께 단식자결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黃玿이 대마도에 잡혀가 구속되어 있던 崔益鉉이 사방득의 절의를 행하더라도 옳음[是]을 성취하는 방법일 것이라며 사방득을 인용하기도 했다.¹⁸⁾

우리나라에서 단식자결한 사례로는 먼저 백제의 成忠을 거론할 수 있다. 성충은 의자왕이 궁녀들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극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굶어죽기 전에 육로는 침현을 막고 해로는 기벌포를 방비하라는 간언을 올렸다.¹⁹⁾ 성충이 단식자결한 시점이 나라

16) 黃景源, 『江漢集』 권31, 「明陪臣傳 5」, “謝枋得爲元所執, 至燕山, 引節不屈而死之. 使宋不亡而枋得不死來歸, 則孰謂枋得之義不可仕也.” 이하 조선시대 문집 및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를 참고하였다.

17) 사방득의 일화는 『宋史』 권425 「謝枋得列傳」 및 『국역 치평요람』 143권 「원(元)·세조[世祖]」 참조.

18) 黃玿, 『梅泉續集』 권1, 「與趙而慶」, “勉翁遠拘異域, 令人欲氣死. 然刀山劍樹, 無非天所以玉成此老. 蓋不幸而爲文山·疊山固好, 幸而爲蘇中郎·洪忠宣亦好. 要之成就一個是, 則必無疑矣.”

19) 단식자결한 성충의 행적은 金富軾의 『三國史記』(권28, 「百濟本紀·義慈王」 16년 기사)에 보인다. 『삼국사기』에 “成忠瘐死”라고 했는데, ‘瘐’는 죄수가 감옥에서

가 망한 이후는 아니지만, 절체절명의 시기에 단식자결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점에서는 한말에 단식자결한 사례와 근사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단식자결한 사례로 李陽元, 崔孝一, 綾城具氏를 거론할 수 있다.

이양원²⁰⁾의 자는 伯春이고, 호는 鷺渚이며, 정종의 왕자인 宣城君 茂生 현손이다. 그는 1556년(명종11) 문과에 급제하여 독서당에 선발되고 대제학을 역임한 인물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난 뒤, 이양원은 유민들을 모아 도성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나 도원수 金命元의 군대가 한강에서 패배하여 왜군이 도성에 근접하자 이양원은 도성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주로 물러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을 중국에 붙이려는 소식을 듣자 이양원은 “국사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國事無可爲也.]”라고 탄식한 뒤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8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통곡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를 두고 許穆은 “지위가 정승에까지 이르렀어도 목숨을 바쳐 옳은 길을 잘 걸었으니, 군자의 올바른 죽음이라 하겠다.[至於貴窮公相, 亦守死善道, 可謂君子之善終者也.]”라고 하고, 후대의 蔡濟恭 역시 “삶과 죽음을 동일하게 여겨 평소 배운 것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군자의 올바른 죽음을 얻었다고 하겠다.[視死如生, 不負所學, 可謂君子之得其死矣.]”라고 칭송했다. 이양원의 단식자결에 대한 허목과 채제공의 공동된 견해는 ‘군자의 올바른 죽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한편 최효일²¹⁾은 조선후기 무신으로, 자는 元讓이고, 義州 출신이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형조 좌랑·훈련원 판관 등을 지냈다. 1627년(인조5) 청나라 기병들이 의주로 쳐들어오자, 統軍亭 아래에서 청의 예봉을 꺾었으며,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는 것을 뜻한다. 후대의 許穆은 “成忠不食死, 臨死上書.”(『記言』 권34, 百濟世家)라고 하고, 安鼎福은 “忠在獄中不食, 臨死上書.”(『동사강목』 권4上)라고 해석했다.

20) 이양원의 행적은 許穆, 『記言別集』 권2, 「李相國遺事」; 蔡濟恭, 『樊巖集』 권41, 「大匡輔國崇祿大夫……漢山府院君鷺渚李公謚狀」 참조.

21) 최효일의 행적은 黃景源, 『江漢集』 권28, 「明陪臣傳4·崔孝一」 참조.

청나라 병사 수십 명을 때려죽여 청나라 장군을 두렵게 만들었다. 1636년(인조14)에 청나라가 의주로 쳐들어오자 林慶業의 휘하에 들어가 청나라 장수 要虎를 사로잡기도 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자 그는 1639년부터는 중국으로 들어가 명나라 장수 吳三桂의 謀士가 되어 분투했다. 1644년 4월에 오삼계가 산해관에서 항복하고, 5월에 청나라가 연경을 함락한 뒤에 武英殿에서 朝賀를 받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했다. 그러나 최효일은 조하도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은 채 명나라 의종의 빈소를 지키며 밤낮으로 통곡했고, 7일 동안 먹지 않다가 굶어죽었는데²²⁾ 오삼계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냈다고 한다.

최효일에 대한 旌褒는 그의 사후 70년이 지난 숙종 대에 와서 閔鎮遠의 진달을 통해 진행되는데, 청나라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포상이 늦어졌다.²³⁾ 하지만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의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종2품으로 증직된 뒤(1715, 숙종41) 致祭가 거행되었으며(1755, 영조31), 자손을 錄用하기도 했다(1756). 정조는 ‘忠壯’이라는 시호를 내리며 친히 지은 치제문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을 경이 특별히 했으니, 어두운 길을 비추는 해와 별이 우리 동국에 밝게 빛났네.[所不能辦, 卿特有之. 昏衢日星, 熒我東陲.]”²⁴⁾ 라고 하며 최효일의 공을 기렸다.

능성구씨²⁵⁾는 여인으로서 단식자결하여 충을 실천한 인물이다. 남편 宋梯(1547~1593)는 진주성이 함락되어 加藤清正이 그를 묶어 항복시키려고 하자

22) 최효일의 죽음에 대해 『숙종실록』(41년 8월 25일)에서는 “7일 동안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라고 하고, 『영조실록』(38년 11월 28일)에서는 “7일 동안 통곡하며 단식하다가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 하지만 7일 동안 먹지 않고 통곡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므로 그의 죽음을 단식자결로 비정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 『숙종실록』 39년(1713) 4월 13일.

24) 正祖, 『弘齋全書』 권24, 「忠壯公崔孝一宣諭日致祭文」.

25) 능성구씨의 행적은 宋煥箕, 『性潭集』 권18, 「南陽宋氏雙忠墓碑銘」; 黃景源, 『江漢集』 권16, 「通訓大夫……洪州鎮管兵馬節制都尉宋公墓誌銘」; 尹行炆, 『碩齋稿』 권15, 「題宋氏雙忠碑後」; 姜霖天, 『重菴集』 책3, 「唐津縣監宋公神道碑銘」 참조.

“내 목은 자를 수 있지만 의리는 굽힐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순국했다. 가등청정은 송제의 절의에 감동하여 성문 남쪽에 묻어주고 ‘朝鮮義士宋梯之墓’라고 표지했다.²⁶⁾ 송제의 아내 능성구씨는 남편이 진주성에서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송제의 형 宋智에게 아들 德駿을 부탁하면서 “이 아이는 충신의 후손이니 잘 보살펴주십시오.”라고 하고는 물과 곡기를 끊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晉水深深繞纒石 깊고 깊은 진주 남강 축석루를 감아도는데
將軍殉國節爲榮 장군이 순국했으니 절의가 영광스럽도다
忠臣家有忠臣妾 충신의 집안에 충신의 아내가 있는 법이니
願與忠臣以死生 원컨대 충신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노라²⁷⁾

조선시대는 남편이 죽은 뒤 부인이 뒤이어 자결함으로써 ‘烈’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능성구씨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자결은 여느 부인들의 자결과는 결을 달리한다. 그는 위의 시에서 ‘忠臣’을 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충’에 대해 분명하게 자각했으며 단식자결을 통해 이를 실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송제를 위해 지은 유사나 묘도문자에서 능성구씨의 행적을 특기하여 칭송했다.

조선시대에 단식자결한 사례는 癸酉靖難이나 남편이 죽자 부인이 따라 죽는 경우, 아들이 죽은 것을 탄식하다가 죽는 경우가 국난에 처해 단식자결한 경우보다 더 일반적이었다.²⁸⁾ 이것은 조국이 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6) 黃景源, 『江漢集』 권16, 「通訓大夫……洪州鎮管兵馬節制都尉宋公墓誌銘」 참조.

27) 姜舜天, 『重菴集』 책3, 「唐津縣監宋公神道碑銘」 참조.

28)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식자결 사례로 金壽延, 閔氏, 鄭氏를 거론할 수 있다. 奇宇萬, 『松沙集』 권49, 「湖隱金公遺事」, “諱壽延, 始仕國朝, 七路兵馬節度, 有至行, 所居里至今稱孝子洞. 聞寧越凶音, 絕粒而終.”; 洪良浩, 『耳溪集』 권37, 「水原府留守贈左贊成趙公諡狀」, “祖諱世發, 有至性, 父歿不勝喪. 配閔氏, 以公終喪日, 絕食而盡, 旌其閭.”;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49, 「耳目口心書2」, “前妻後妻皆烈女. 韓五相字世翊, 年三十七歿.……後娶鄭府使基崇女, 五相死, 鄭氏自刎, 殊而未絕. 子均又死, 終不食而死.”

적들의 침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지 단식자결할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단식자결의 상징인 백이와 사방득이 시대를 넘어 소환되었고, 이들에 대한 의식지향은 국망의 시기에 더욱 절실한 저항의 한 양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2.2.2. 투신자결의 연원

진국 시대 屈原은 초나라 懷王을 보좌하여 삼려대부를 지냈으나 참소를 받아 관직을 떠났으며, 회왕의 아들 襄王 때에 다시 참소를 당하여 長沙로 좌천되자 「漁父辭」 등을 지은 다음 汨羅水에 투신하여 죽은 인물이다.²⁹⁾ 굴원이 망국의 상황에서 투신자결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투신한 그의 행적은 후대에 자주 소환되었다.

유독 그가 난리에 임하여 물에 빠져 죽은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더러 이해하는데, 나는 당시 위급한 나라 상황이 屈平이 살던 초나라보다 심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이 굴평과 무엇이 달랐겠는가.³⁰⁾

인용문은 임진왜란 당시 투신자결한 朴枝華의 문집인 『수암집』 서문의 일부이다. 박지화는 화담 서경덕에게 수업을 받고 유교·도교·불교에 모두 조예가 깊었지만,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관직이 吏文學官에 그쳤고 명산을 유람하며 지냈던 인물이다. 박지화의 행적이 자세하지 않아 그가 자결한 정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가 순국한 장소를 허목은 춘천이라 하고, 양경우는 포천이라 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왜적에게 쫓기다가 투신하기 전에 나무를 깎아서 “갈매기는 본디 물에서 자니, 무슨 까닭으로 너무 슬퍼하라? [白鷗元水宿, 何事有餘哀?]”라는 두보의 시를 써 놓은 일화³¹⁾나 투신한 뒤에 물속에서도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깨끗하게 앉아

29) 『史記』 권84, 「屈原價生列傳」.

30) 李敏鉉, 『西河集』 권12, 「守菴集序」, “獨其臨難赴淵, 世或疑之. 余謂其時國勢之危急, 甚於屈平之楚, 則不忍見宗國之淪喪者, 與屈平何異也?”

있었다³²⁾는 일화는 대체로 같다. 이 때문에 李敏敍가 그의 문집 서문에서 그의 투신과 굴원의 투신을 연결하여 그의 투신자결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한편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투신자결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로 전국 시대 제나라의 魯仲連이 있다. 그가 趙나라에 머물 때에 秦나라가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했다. 이 당시 조나라에 와 있던 魏나라의 辛垣衍이 진나라 왕을 황제로 추대하는 조건으로 진나라 군대를 철수시키려는 전략을 짰는데, 노중련은 신원연에게 진나라의 무도함을 역설하면서 “저 진나라가 방자하게 황제를 자칭하고 죄악으로써 천하에 정사를 행한다면, 나는 차라리 동해에 빠져 죽을지언정 차마 그 백성은 될 수 없다.[彼卽肆然而爲帝, 過而爲政於天下, 則連有蹈東海而死耳, 吾不忍爲之民也.]”라고 설득했고,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가 마침내 퇴각했다.³³⁾ 노중련이 실제로 동해에 빠져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결기가 진나라 군대를 퇴각시키게 했다는 점이 강조되어 후대에 노중련의 일화는 국가의 위난에 대처한 투신자결의 전고로 활용되었다.

都曠은 조선의 개국을 반대하며 고려를 위해 절의를 지킨 인물로,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고려가 망하자 ‘바다를 밟고[蹈海]’ 죽을 생각이 있어 바닷가 구석에 숨어 살았는데,³⁴⁾ 망국의 신하로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노중련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병자호란 때 절개를 지킨 삼학사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홍익한·윤집·오달제를 평가하면서 “저 절조를 굳건히 지킨 세 신하는 홀로 바다를 밟는[蹈海] 대의를 떨쳐서 늙은 서릿발 같은 절조와 창연한 松柏 같은 의지가 1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감개하게 하며, 우리 聖朝에서 충의를 배양한 효과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³⁵⁾라고 했다. 도응

31) 許穆, 『記言別集』 권26, 「朴守庵事」.

32) 梁慶遇, 『霽湖集』 권9, 「詩話·朴學官守庵」.

33) 『史記』 권83, 「魯仲連列傳」.

34) 張福樞, 『四未軒集』 권7, 「靑松堂實紀序」, “及麗運告訖, 慨然有蹈海想, 隱伏海曲, 名其洞曰魯隱.”

35) 『국역 승정원일기』 영조 6년 경술년(1730) 3월 7일.

과 삼학사가 투신자결하지 않았는데도 노중련의 투신은 절개의 상징으로 소환되었고, 국가가 망하려 하는 실제 현장에서는 투신자결로 이어졌다.

임진왜란을 예로 들어보면, 왜군과 전투를 하다가 패색이 짙자 수많은 이들이 적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 투신자결을 선택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申稔과 金汝叻의 경우인데, 이들은 충주의 달천에서 배수진을 치고 적군과 대결하다가 패배하자 강물에 투신자결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진주성 전투와 관련된 투신자결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진주성 전투³⁶⁾의 첫 번째 전투는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두 번째 전투는 조선군이 처절하게 패한 전투이다. 두 번째 전투는 1593년 6월 20일~29일까지 열흘 간 벌어졌다. 왜군은 첫 번째 전투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28일에 큰비가 내려 성벽 한 쪽이 무너졌고, 29일에는 무너진 성벽으로 난입하기 시작했다. 倡義使 金千鎰, 경상 우병사 崔慶會, 의병장 高從厚 등은 치열하게 대항하다가 결국 축석투에서 북향 재배한 뒤에 남강에 투신하여 자결했다.

우리 온 집안이 무예를 배우지 않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오직 구구한 충의로써 인심을 격동해 일으키려는 것이었는데, 죽은 아우는 본래 의기에 찬 남아라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일찍이 적병이 조령을 넘은 뒤로 의병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여 형제가 함께 격문을 지었습니다.……그 끝 구절은 죽은 아우가 단독으로 지은 것인데 이르기를 “저놈들이 물려들면 노중련처럼 동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田單이 齊나라를 도로 찾듯 하는 일을 바랄 뿐이다.”라고 했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역시 그 마음이 짐을 정험해 알 수 있습니다.³⁷⁾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진주전투” 조목 참조.

37) 趙慶男, 『亂中雜錄』 1, 「壬辰上·7月10日」, 『吾一家不學軍旅, 衆所知也. 欲以區區忠義, 感發人心, 而亡弟素性慷慨, 以死自決. 嘗於賊兵踰鳥嶺之後, 欲倡義兵.……其末句, 乃亡弟全撰者, 有曰: ‘彼則肆然有魯連之蹈海. 今日尙矣, 冀田單之反齊.’ 以此推之, 亦可驗其所存矣.』

인용문은 고종후가 李適에게 보낸 별지의 일부이다. 고종후는 1년 전 금산 전투에서 순국한 高敬命의 아들이자 高因厚의 형이다. 고종후는 처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동생 고인후와 함께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격문을 보냈는데, 그가 남강에 투신자결한 것이 그저 적들에게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을 결심했다.[以死自決.]”고 한 것과 “노중련처럼 동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肆然有魯連之蹈海.]”라고 한 것은 고인후와 관련된 일화이다. 그럼에도 고종후와 고인후가 함께 격문을 지었다는 점, 의병장으로서 왜군에게 끝까지 항거하다가 순국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역시 왜군이 쳐들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결사항전을 다짐했고, 투신자결한 것 역시 결사항전의 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경상우도 관찰사로서 왜군과 항전하다 진주 공관에서 1593년 4월에 순국한 김성일 역시 초유사로서 의병을 모으기 위해 격문을 기초했는데, “적의 머리를 베어 바치는 것을 으뜸가는 공로로 삼는 진나라는 애당초 순전한 오랑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노중련은 오히려 바다에 몸을 던져 죽는 것을 달갑게 여겼다.”³⁸⁾라고 하여 노중련을 소환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임진왜란뿐 아니라 청나라가 쳐들어와 강화도를 함락시켰을 때에도 수많은 이들이 적군의 손에 죽는 것보다 투신자결을 선택했고,³⁹⁾ 한말의 宋伯玉(1837~1887)은 외세에 의해 국권이 날로 쇠약해짐을 보고 한탄하다가 1887년(고종24) 10월 의관을 정제하고 사당에 참배한 뒤 강에 투신자결했다.

2.2.3. 자해자결의 연원

충신의 대명사로 일컫는 이 중에 王蠋이 있다. 그는 “충신은 두 임금을

38) 金誠一, 『鶴峯集』 권3, 「招諭一道士民文」, “上首功之秦, 初非純乎夷狄, 魯連猶甘蹈海之死.” 조경남의 『난중잡록』에 의하면 김성일이 이 글을 작성한 것은 1593년 5월 5일이다.

39) 강화도가 함락되었을 때 투신자결한 이로, 李惇叙, 具元一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역 연려실기술』 26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강화도에서 순절(殉節)한 사람들」 참조.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 貞女不更二夫.]”라는 말로 유명하다. 왕축은 전국 시대 제나라 畫邑⁴⁰⁾ 사람이다. 연나라 장수 樂毅가 제나라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왕축의 명성을 듣고 희읍을 30리 밖에서 포위하고 사람을 보내 왕축에게 연나라 장수로 삼고 萬戶의 식읍을 주겠다고 했으나 왕축이 사양했다. 이에 악의가 삼군을 거느리고서 희읍을 도륙하겠다고 협박하자, 왕축이 위의 말을 남기고는 목을 매어 자결했다고 한다.⁴¹⁾

앞드려 생각건대 신은 성품과 자질이 몽매하고 집안이 한미한 채 前朝(고려)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門下注書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이미 신하가 되어 몸을 바친 바에야 마땅히 힘을 합하여 충성을 다했어야 하는데 僞宗(공양왕)이 망하는 때를 당하여서도 이미 희읍처럼 목숨을 버리지도 못했고 眞主(태조)이 일어나신 뒤에도 또 수양산으로 들어가 곡식을 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명분과 의리가 이로 인하여 아울러 없어졌고 맑은 절개도 이로부터 꺾였습니다.⁴²⁾

인용문은 吉再가 태상박사를 사양하면서 올린 글로, 고려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지낸 신하가 조선이 들어섰다 하여 벼슬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양하는 내용이다. 길재가 근거로 든 것이 두 가지인데, 희읍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은 왕축의 일화이고, 수양산에서 들어가 곡식을 사양한 것은 백이·숙제의 일화이다. 길재가 이 글을 직접 지은 것인지 후세 사람이 가탁하여 지은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⁴³⁾ 망국의 신하가 가져야 할 처신의 근거

40) 畫邑 : ‘畫’은 일반적으로 ‘획’으로 받음한다. 『사기집해』에서는 ‘획(獲)’이라 했고, 『사기색은』에서는 ‘화(胡卦反)’라고 했다.

41) 『史記』 卷82, 「田單列傳」

42)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9, 「寒竹堂涉筆 下·治隱辭太常箋」, “伏念臣性資昏蔽, 門地孤寒, 當捷科於前朝而歷職於門下. 旣乃爲臣而委質, 固當戮力而盡忠, 丁僞宗覆亡之時, 旣不能捐軀畫邑, 及眞主奮興之後, 又不能辭粟首陽. 名義以之俱淪, 清節自茲兼撓.”

43) 李德懋, 위의 글, “世傳以爲治隱所撰, 而或云後人擬撰.”

로 왕축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재 이후에도 왕축은 충신과 열녀의 의리를 개진한 인물로 언급되지만,⁴⁴⁾ 적병에게 굴하지 않고 순절하여 군자의 떳떳한 도리를 실천한 인물로도 평가받았다.⁴⁵⁾ 또한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 및 자결순국한 이들에게도 자결의 명분을 제공하였다.⁴⁶⁾

왕축 이외에 자해자결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나라 田橫이 있다. 전횡은 조카인 齊王 田廣이 韓信에게 사로잡혀 죽자 자립하여 왕이 되었으나, 劉邦이 천하를 통일하여 황제가 되자 500여 명의 무리를 데리고 섬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얼마 뒤 유방이 전횡을 회유하자, 전횡이 빈객 두 사람과 낙양으로 가다가 30리를 남겨 두고 “내가 처음에 漢王과 나란히 왕이라 칭하다가 지금 한왕은 천자가 되고 나는 망국의 포로가 되어 그를 섬기게 되었으니, 너무도 부끄럽다.”라고 말한 뒤 스스로 목을 찢러 죽으며 두 사람에게 자신의 수급을 유방에게 바치게 했다. 유방이 이 소식을 듣고 왕자의 예법으로 전횡을 장사지냈는데, 장례를 마치자 두 빈객은 전횡의 무덤 곁에 구멍을 파고 자결하였고, 섬에 있던 500여 명도 모두 자결했다고 한다.⁴⁷⁾

조선에서도 전횡의 자결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심지어 그가 살던 鳴呼島까지 회자될 정도였다. 척화파의 영수인 김상헌의 손자 金壽恒이 科體詩로 「鳴呼島弔田橫」(『文谷集』 권7)을 지어 대제학 李植에게 올렸는데, 이식이 옆 사람을 돌아보며 “이는 근래의 과체를 익힌 자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성균관 시험에서 1등을 매겼다고 한다.⁴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횡이 살던 섬이 있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숙종 대에 영천의 유학 權

44) 俛循, 『東文選』 권44, 「進三綱行實箋」, “歷觀古人之說, 莫如王蠋之言. 人無信則事無成, 女必貞而行必篤.”

45) 權尙夏, 『寒水齋集』 권20, 「答季文 辛丑正月」, “若王蠋·江萬里見時事無措手處, 退居田野, 不屈敵兵而殉節, 此君子之常道也.”

46) 1910년에 음독자결한 李學純과 金奭鎭이 일제에게 저항하며 왕축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려수필』 2 「이학순」 및 「김석진」 참조.

47) 『史記』 권94, 「田儋列傳」

48) 金昌協, 『農巖集』 권5, 「先集跋」, “又作鳴呼島詩, 質于大學士澤堂李公. 澤堂尤稱善, 顧謂其客曰: ‘此非近世習科體者所能爲也.’ 又於頓試, 取以置冠首.”

舜元이 단을 세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상소하였고,⁴⁹⁾ 영조도 오호도가 우리나라 洪州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⁵⁰⁾

왕족이나 전횡처럼 자해자결로 저항한 사례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란에 많이 보이는데,⁵¹⁾ 아래에서는 강화도 함락 때 자결한 사례를 살펴보겠다.⁵²⁾

1637년(인조15) 청나라가 강화도를 함락하려고 했을 때, 그곳을 지키던 사람들은 끝까지 항전했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성이 함락되려고 하자 수많은 이들이 자결을 통해 항전의 의지를 보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화약고에 불을 놓아 폭사한 金尙容인데, 김상용의 서손 金壽全과 종도 그 자리에 있었다. 또한 김상용을 따르던 李尙吉, 洪命亨, 金益兼, 權順長, 金秀南 등도 김상용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자결했다.

강화도에서 순국한 이들 중에는 부부가 함께 자결한 사례도 있다.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沈說이 아내 송씨에게 국가의 위기를 의리상 피할 수 없다며 『맹자』의 捨生取義를 따르겠다고 하자, 아내 송씨도 생사를 같이하겠다고 했다.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이들은 강화도로 들어갔고, 강화도가 함락되자 심현은 상소를 올린 뒤 목을 찢러 먼저 자결한 송씨의 염을 마치고 자신도 목을 매어 자결했다.

宋時榮은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세자빈을 따라 강화도에 들어왔는데, 청인들이 강화도를 함락시킨 뒤 세자빈을 유폐하자 자신의 소임을 마치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목을 매어 자결했다. 李時稷은 송시영과 강화도에서 같은 집에 살았는데, 송시영이 먼저 죽자 곡을 한 뒤 종에게 구덩이 두 개를 파게

49) 『국역 숙종실록』 34년(1708) 7월 24일, 11월 10일 기사 참조.

50) 『국역 영조실록』 17년(1741) 5월 21일 기사 참조.

51) 자해자결의 사례는 『삼국사기』부터 보인다. 마한의 옛 장수 周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온조왕이 직접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토벌하자 주근이 스스로 목을 매고 죽었다고 한다. 『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濫祚王」 34년 기사, “馬韓舊將周勤, 據牛谷城叛。王躬帥兵五千討之, 周勤自經。腰斬其尸, 并誅其妻子。”

52) 黃景源은 청나라에 대항한 인물들을 분류하여 「明陪臣傳」 6권(黃景源, 『江漢集』 권27~권32)을 지었는데, 강화도에서 자결한 사례는 「明陪臣傳2」(『江漢集』 권28)를 주로 참고하였다.

했다. 한 곳에는 송시영을 묻고 다른 한 곳은 비워 두고 자신이 죽으면 그곳에 묻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종묘사직은 망하고 만백성은 어육이 되었구나. 의리상 구차히 살 수 없으니 기꺼운 마음으로 자결하겠노라. 몸을 죽여 인을 이루니 우러르고 굽어봐도 부끄럽지 않다다.[社稷淪亡, 萬姓魚肉. 義不苟活, 甘心自決. 殺身成仁, 俯仰無怍.]”라고 한 뒤 활시위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을 때 여인들이 자결한 경우도 많았다.⁵³⁾ 尹宣舉의 아내 이씨는 목을 매어 자결했고, 洪命一의 아내 이씨는 질부 나씨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으며, 천민의 아내나 양반들의 첩 중에도 자결한 이들이 많았다.

3. 자결순국 기제로서의 유교 답론

3.1. 문명인의 자부와 자존의식

한말은 혼란의 도가니라고 할 정도로 대사건이 빈번하게 발발한 시기였다. 병인양요, 강화도불평등조약, 갑오경장과 동학농민전쟁, 을미사변, 을사늑약, 강제 병합이 이어졌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조선 땅에서 벌어졌다. 결국 조선 정부가 일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지만, 외세 특히 일제에 대한 저항은 면면히 이어졌다.

단발령⁵⁴⁾은 을미사변(1895) 3개월 후에 단행된 사건이다. 고종은 1895년 11월 15일에 오는 17일을 기하여 建陽 원년 1월 1일로 삼고, 음력에서 양력으로 역법을 변경했다. 또한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53) 강화도가 함락되었을 때 자결한 부인들의 사례는 이궁익의 『국역 연려실기술』 26권, 「순절한 부인들」 참조.

5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단발령” 조목 참조. 참고로 1902년 8월 군부·경무청에 소속된 군인·경찰·관원 등 제한된 범위의 인물들에게 한하여 재차 강제 단발을 명했다.

고종의 조치으로 단발령을 선포한다고 했다. 단발령의 조짐은 1894년 2차에 걸쳐 전통적인 의복 제도를 서양식으로 개정한 ‘變服令’이 공포되면서 나타났고, 1895년 10월 중 일본 관리가 고종에게 먼저 단발을 강요했는데, 당시 고종은 명성황후의 인산 이후로 시기를 미루어 왔던 것이다.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발령을 선포한 고종은 태자와 함께 11월 15일에 단발을 했다. 국왕이 모범을 보여 백성들에게 단발을 강행하려는 의도였다. 이와 같은 조처는 고종의 자의도 아니고 내각 전체의 의사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단발령은 을미사변과 더불어 반일 감정을 격화시켰고, 전국 각지에서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

단발령이 역효과를 가져온 이유를 들자면, 첫째는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문화의 전통 때문이다.

- ① 몸과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아 나온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⁵⁵⁾
- ② 이불을 건어 내 발을 살펴보고 내 손을 살펴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삼가서 깊은 못에 입한 듯이 하며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야 내가 몸을 훼손하는 데서 면한 줄을 알겠구나. 제자 돌아.⁵⁶⁾
- ③ 부모가 온전하게 낳아 주셨으니 자식이 온전히 보전하여 돌아가야 효라 이를 수 있다. 그 몸을 훼손하지 않으며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온전히 보전했다고 할 수 있다.⁵⁷⁾

인용문은 유교문화에서 대표적으로 효를 언급한 부분이다. ①은 공자가 증자에게 한 말이고, ②는 증자가 임종 직전에 한 말이며, ③은 증자의 제자

55) 『孝經』, 「開宗明義章」,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56) 『論語』, 「泰伯」, “啓予足, 啓予手. 詩云‘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57) 『禮記』, 「祭義」, “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可謂孝矣. 不虧其體, 不辱其身, 可謂全矣.”

인 樂正子春이 한 말이다. 이 언급들의 공통분모는 증자인데, 증자는 공자의 학문을 계승한 인물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효의 상징으로 칭송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효는 유교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중 하나이다. 부모의 상 때문에 자결을 미루기도 하고, 執喪하기 위해 전투 중에 지휘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보면, 단발령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둘째, 효는 한 집안에 국한되는 윤리지만 이것이 국가로 확장되면 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교문화에서 충과 효는 표리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발령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및 유교문화 전체를 흔드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⁵⁸⁾ 공자는 일찍이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했을 것이다.[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논어』 「현문」)라고 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풍습은 중화의 전통이 아니라 이민족의 풍습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한민족의 혈연적 기원은 단군이고 문화적 기원은 箕子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중화’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은 유교문화의 기원을 기자로 소급하면서 문화적 자존의식을 공고히 해왔는데, 단발령은 이 자존의식을 치참하게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 ① 만약 용모가 훼손되어 짐승이 된 것을 편안하게 여기며 평계대기를 ‘나에게 어머니가 계시니 죽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온 세상이 짐승 되어도 진실로 남들을 흥기시킬 것이고, 온 세상이 오랑캐가 되어도 더욱 더 중화를 일으킬 것이다.⁵⁹⁾
- ②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오랑캐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장차 죽지 않고는 머리카락을 지킬 수 없겠구나.⁶⁰⁾

58) 금장대는 「V. 종교를 통한 국권수호운동 · 유교」(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524면)에서 단발령을 “중화문화의 전통에 근거한 인간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짐승의 야만적 상태로 타락한다는 민족국가의 위기 의식인 동시에 자기존재의 위기의식이다.”라고 해석했는데, 필자는 이 의견에 도움 받은 바 많다.

59) 『기려수필』, 「李興宰」, “若恬然於毀形爲獸而自諉曰‘我有母，不可死’，果成何如人哉?……雖舉世皆獸而允起人也，舉世皆夷而尤起華也.”

①은 金福漢이 李興宰의 자결을 논평하며 한 말이고, ②는 李鳳煥이 단발령 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 이흥재는 연안 이씨로, 문형을 잡았던 이정구·이명한·이일상·이정보 집안의 자손이다. 그는 고종이 머리를 깎이는 모욕을 당하고 단발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통곡하다가 기운이 소진되어 죽었다. 이봉환은 이항로를 스승으로 섬기다가 이항로가 죽자 김평목과 유중교에게 수학했는데, 단발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글을 지어 스승의 영전에 고한 뒤 음식을 끊은 지 7일 만에 생을 마감했다.

단발령과 문화적 자존의식을 연계하는 것은 당대에 팽배했던 분위기였다.⁶¹⁾ 金根培는 “부모가 남겨주신 몸을 훼손하고 선왕의 범복을 바꾸어 오랑캐 풍속을 좇는 것은 내가 차마 못하겠다.[毀父母之遺體, 易先王之法服, 以從其蠻俗, 吾不忍爲也.]”라고 했고, 金永相은 “차라리 죽어 이 머리가 없을지언정 같은 하늘을 이고 어찌 차마 이 마음 가질까. 동방 오백 년 종사에 누가 관중처럼 좌임을 면해줄까.[寧地下從無此首, 共天上戴忍斯心? 惟東五百年宗社, 誰可夷吾免左襟?]”라고 했다. 또한 조 아무개의 아내 김씨는 남편이 한복을 입고 나갔다가 양복으로 바뀌 입고 돌아오자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훼손한 것은 난신적자이니, 자신은 난신적자의 처가 될 수 없다며 한글 유서 한통을 작성한 뒤에 자결했다.⁶²⁾

60) 『기려수필』, 「李鳳煥」, “以吾東禮義之邦, 遽有此夷狄之變乎? 吾將不死, 不得保其髮.”

61)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郭鍾錫·金道和·金興洛은 『安東通文』에서 “머리 깎고 옷 설을 원편으로 여미는 것이 이미 임금의 주변에까지 가해졌으니, 5백년 문물이 거의 다 거름더미가 되고 삼천리 강산이 장차 야만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이만웅·금봉술 등의 『禮安通文』에서도 “이 머리털을 한 번 깎으면 선왕의 백성이 모두 오랑캐의 몸이 되고, 鄒魯와 같은 옛 나라가 모두 금수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니 차마 볼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유광렬 편, 『항일선언·창의문집』, 서문당, 1975, 32-35면 참조.(금강태, 앞의 책, 524면 재인용) 단발령에 대한 거부는 30년대에도 이어지는데, 이 역시 문화적 자존의식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발령의 거부에 대해서는 『신한민보』 1933년 10월 26일 2면 4단의 “경남 함안군에 색의 단발령” 기사 및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3일 5면 10단 “상투쟁이 수난, 유럽에 단발령” 기사 참조.

62) 김근배와 김영상은 단발령을 거부한 이후에도 은사금을 거부하며 자결순국했는

3.2. ‘士’ 의식의 각성과 실천

유교문화에서는 선비[士]의 처신과 임무 등을 강조하는 것이 많다. 선비의 정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보고배운 뜻을 실천하고 죽음에 임해서도 결코 꺾지 않는 志士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지사의 책무는 죽음을 마다치 않고 인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며, 국가의 존망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기도 하다. ‘殺身成仁’이나 ‘見危授命’이라는 성어가 나올 정도로 지사는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유교문화의 기본 윤리였다.⁶³⁾ 특히 견위수명은 ‘安重根의 유묵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다.

나는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선비를 길러온 지 500년이 되었는데, 나라가 망한 날을 당해 한 사람도 국난에 죽는 자가 없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위로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글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 버린다면 참으로 통쾌함을 깨달을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⁶⁴⁾

-
- 데, 김근배는 우물에 투신자결했고 김영상은 군산 감옥에서 단식자결했다. 김근배, 김영상, 김씨부인의 사례는 『기려수필』 2 「김근배」 및 「김영상」, 「김씨부인」 참조. 단발령 거부 이외에도 문화적 자존의식은 여러 의사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례로 李喆榮은 警務部長 호소이[細井愛]가 공손하지 않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자 “의리로 말하면 너는 나의 원수요, 존비로 말하면 나는 중화며 너는 오랑캐인데, 어찌 불공하다는 것이나?[以義言, 則爾是我讎; 以尊卑言, 則我華而爾夷, 有何不恭?]”라고 따져 물었다. 이철영의 사례는 『기려수필』 2 「이철영」 참조.
- 63) 『論語』, 「衛靈公」,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憲問」, “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공자가 말한 ‘見危授命’은 成人을 지칭하지만, 『논어』 「子張」에서 자장이 “선비가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이득을 보고 의를 생각하며, 제사에 공경함을 생각하며, 상사에 슬픔을 생각한다면 가하다.[士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라고 한 것을 감안할 때 ‘견위수명’은 ‘견위치명’과 함께 지사의 책무로 독해되었다.
- 64) 黃玿, 『梅泉集』 권수, 金澤榮, 「本傳」, “吾無可死之義, 但國家養士五百年, 國亡之日無一人死難者, 寧不痛哉! 吾上不負皇天秉彝之懿, 下不負平日所讀之書, 冥然長

인용문은 黃玟이 음독자결하기 전에 한 말이다. 황현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다가 “인간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어렵구나.[難作人間識字人.]”라는 절명시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생원시에 합격한 뒤 잠시 관직에 뜻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외세의 침탈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조정의 신하들이 외세에 빌붙거나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하여 관직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했다. 그가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선비의 책무를 자각했기 때문에 음독자결을 결행하게 된 것이다.⁶⁵⁾

황현처럼 선비의 자각을 강조하며 투신자결한 인물로 충북 괴산의 安瀾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는 관직도 없는데 무엇을 지키려고 죽는다고 말하는가!”라고 했다. 안숙이 개연히 말하기를, “국가는 선비를 기르기를 오백년이나 했는데, 선비는 홀로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인가? 또한 公卿 가운데에 죽는 자가 없으니, 선비라도 어찌 죽지 않겠는가?”⁶⁶⁾라고 했다.

병합 소식을 듣고 24일을 단식하다 순국한 인물로 李晩燾가 있다. 그는 아들 中業에게 단식자결의 근거로 ‘견위수명’을 거론하였는데, 자신은 귀척도 아니고 시종신도 아니고 봉작을 받은 신하도 아닌 선비이기 때문에 단식을 선택한다고 했다. 이만도는 1866년에 문과에 장원하여 홍문관 부교리, 공조참의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선비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1884년 이후로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물러나 후학 양성에만 힘썼고, “죽음에도 분수가 있다.[死亦有公數.]”라고 한 것을 감안할 때 그는 현재의 위치, 곧 士의 신분을 염두에 두고 단식을 선택했던 것이다.⁶⁷⁾ 이만도의 자결을 두고

寢，良覺痛快，汝曹勿過悲。”

65) 황현이 절의를 다짐한 사례 중 하나가 「題屏畫十絶」(『매천집』 권4)인데, 이 시는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 지조를 지킨 10인, 곧 梅福, 管寧, 張翰, 陶潛, 司空圖, 梁震, 家鉉翁, 謝翱, 顧炎武, 魏禧의 화상을 그린 10폭 병풍에 쓴 제화시이다.

66) 李建芳, 『蘭谷存稿』, 「金安傳」, “人曰: ‘子無官守何言死!’ 瀾慨然曰: ‘國家養士五百年, 士獨不可爲國死乎? 且公卿無死者, 士安得不死?’”

사람들은 “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했다.[鼓作志士之氣.]”⁶⁸⁾라고 말했는데, 지사로서 순국한 그의 처신에 맞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지사는 자신의 시신이 도랑에 버려질 것을 늘 생각하고, 용사는 자신의 머리를 잃을 것을 늘 생각한다.⁶⁹⁾

제나라 景公이 사냥을 나갔을 때 대부를 부르는 깃발[旌]로 산림지기를 불렀는데, 산림지기는 자신의 본분에 맞지 않는 부름이라 판단하여 경공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인용문은 공자가 산림지기를 칭찬하며 한 말로, 선비들의 절개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신념을 나타낼 때도 많이 인용한다.

李是遠은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지키다가 자결한 인물이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었으나 충의를 실천한 인물들의 글을 읽을 때에는 목소리가 낭랑하고 눈물을 줄줄 흘릴 때도 있었는데, “지사는 시신이 도랑에 버려질 것을 늘 생각한다.[志士不忘在溝壑.]”라는 구절을 외고 다녔다고 한다.⁷⁰⁾ 安炳瓚⁷¹⁾은 을미의병을 일으켰다가 투옥되었는데, 칼로 목을 찌른 다음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 인용문 구절을 창호지에 썼다고 한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뒤에 은사금 명목으로 지식인들을 회유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갖은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崔宇淳은 은사금을 끝내 거절하며 음독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일제의 관리에게 은사금을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산림지기는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른다 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가지 않았다. 하물며

67) 이만도의 단식자결과 관련된 일화는 李晩燾, 『響山集』 부록 권1, 柳必永, 「行狀」 참조.

68) 李晩燾, 『響山集』 부록 권2, 李中轍, 「跋文」.

69) 『孟子』, 滕文公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70) 이시원의 일화에 대해서는 李建昌, 『明美堂集』 권18, 「祖考贈大匡輔國崇祿大夫……贈諡忠貞公府君墓誌」 참조.

71) 『기려수필』 1, 「안병찬」 참조.

지금은 의리에 맞지 않는 것이 백 배도 넘는다. 명색이 유학자인데 산림지기도 하지 않던 것을 한다면 산림지기보다 못할 뿐 아니라 개돼지보다 못한 것이다.”⁷²⁾라고 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金志洙⁷³⁾는 은사금을 거부하며 목을 매고 자결했는데, 그는 평소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배우는 자들은 ‘志士不忘在溝壑’에 뜻을 둔 뒤라야 의리가 중해지고 생사를 저울질하는 마음이 적어진다고 했다.

3.3. 舍生取義와 도의 실현

자공이 공자에게 정사를 펼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하자, 공자는 양식과 군대, 백성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공자는 중요도의 순서를 말하면서 군대보다 양식이 중요하고 양식보다 백성들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⁷⁴⁾ 군대는 차치하더라도 양식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자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마련해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바요,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⁷⁵⁾

유교문화에서는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

72) 『기려수필』 2, 「최우순」, “虞人以非其招, 死不往, 況今非其義, 有百倍於非其招乎? 以儒名爲虞人之所不爲, 非但虞人之不若也, 狗彘之不若也.”

73) 『기려수필』 2, 「김지수」 참조.

74) 『論語』, 「顔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75) 『孟子』, 「告子上」,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가 있다면 과감하게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인용문에서 맹자가 말한 ‘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무도한 군주에게 간언할 때나 자신의 절의를 굽히지 않을 때 사용하고, 나라를 위해 자결한 경우에도 많이 인용했다. 李植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국한 이들을 기리는 글에서 “나라에 의리를 바쳐 자진했으니, 거기에 무슨 관직의 높고 낮은 차이를 둘 수 있으리요. 범의 입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곰 발바닥과 물고기의 취사를 결정했다.”⁷⁶⁾라고 했다. 이처럼 舍生取義 또는 ‘熊魚章’으로 일컫는 이 구절은 한말·일제강점기 유학자들도 많이 언급했다. 최익현은 1906년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4월 23일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그를 체포하기 위해 왜병이 포위했을 때 태연자약하게 앉아 『맹자』의 ‘浩然章’과 ‘웅어장’을 암송했다.⁷⁷⁾

형 상근이 말했다. “큰 대신으로서 자결하면 그 죽음은 명예롭지만, 너는 일개 빈천한 선비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죽더라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것이니, 그 죽음이 부질없지 않겠느냐?” 근주가 웃으며 말했다. “예로부터 절개를 세우는 자는 내가 죽을 만한 의리를 생각할 뿐이지 어찌 이름을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겠습니까?”⁷⁸⁾

李根周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선포되었을 때 의병을 조직하려고 했고,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자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9월 13일이 큰형 李根夏의 회갑일이어서 자결하지 못하고 회갑을 마친 뒤에 자결을 결심했다. 인용문은 이때 둘째형 李根商과 주고받은 대화이다. 이근주가 자

76) 李植, 『澤堂別集』 권12, 「江華顯烈祠上梁文」, “義自靖於宗祏, 官豈間於崇卑? 跡寄虎吻, 定取舍於熊魚.”

77) 崔益鉉, 『勉菴集』 부록 권4, 「年譜4」, “自是除兵嚴守, 羣倭攔入, 夜則鼓刀戛銃, 作聲甚惡. 先生坐自若曰: ‘舟中『大學』, 獄中『尚書』, 古有已例, 宜各誦一書.’ 遂復整坐, 先誦『孟子』『浩然』·『熊魚』二章, 諸生亦以次誦一篇.”

78) 『기려수필』 1, 「이근주」, “根商曰: ‘爲大臣而死, 其死有令名. 君不過一韋布, 雖死, 人無知者, 其死, 不其徒乎?’ 根周笑曰: ‘自古立節者, 孰吾可死之義而已, 安有其名之知與不知而爲死生乎?’”

결순국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죽을 만한 의리[可死之義]”였는데, 그는 『맹자』를 즐겨 읽었고, ‘웅어장’을 읽을 때면 무릎을 치며 탄식했다고 한다.

천하에 도가 있을 때에는 도로써 몸을 따르고[殉], 천하에 도가 없을 때에는 몸으로써 도를 따르는 것이다.⁷⁹⁾

인용문에서 “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도를 지킨다는 의미이다.⁸⁰⁾ 기실 道의 유무가 국가의 존망과 반드시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를 보존하고 있는 국가가 무도한 이민족에게 침탈당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남송이 원나라에 망했을 때 취했던 陸秀夫의 행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육수부는 원나라 군대에 쫓길 때에도 『대학』을 강론할 것을 권장했고, 주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는 마당에 강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자, 이 도가 없어지면 나라를 찾은들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고 강을 끝낸 다음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⁸¹⁾

한말·일제강점기의 유학자들도 육수부가 처했던 상황과 유사했다. 의병을 일으켰다가 투옥된 李錫庸은 대한의 닭과 개가 될지언정 왜놈의 신하가 될 수 없다며 간수들을 꾸짖었고, 매일 『중용』, 『대학』, 『논어』, 『맹자』를 암송했다. 全垂鏞 역시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사형 당했는데, 그는 군진에 있을 때 천하의 대의 3가지 중 하나로 예로부터 전해온 도학을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었다. 朴世和는 강제병합 소식을 접한 뒤 “지금 나라가 망하여 우리 도와 중화 문명이 함께 망하였으니 어찌해야 하나.[今爲國亡, 道與華而俱亡, 其將何哉?]”라고 탄식하며 23일간 단식하다가 순국하였다.⁸²⁾

79) 『맹자』, 「盡心上」, “天下有道, 以道殉身; 天下無道, 以身殉道.”

80) 朱熹는 이 구절의 의미를 명쾌하게 밝혀 놓았는데, ‘殉’은 殉葬의 殉으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孟子集註』, 「盡心上」, “殉, 如殉葬之殉, 以死隨物之名也. 身出則道在必行, 道屈則身在必退, 以死相從而不離也.”

81) 『宋史』 권451, 「忠義列傳」.

82) 이석용, 전수용, 박세화의 일화는 『기려수필』 2 참조.

당시 비바람이 불고 몹시 추웠는데 옷을 매우 얇게 입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어찌 솜옷을 입지 않았는가?” 강표가 말했다. “망국의 포로이니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을 생각이 없네.”……내가 말했다. “절개를 지키다 죽는 것이 정말이지 아름다운 일이지만, 후회는 없겠는가?” 강표가 말했다. “인을 추구하다가 인을 얻었으니, 무에 그리 후회스럽겠는가?”⁸³⁾

인용문은 吳剛杓가 자결하기 전 崔鍾和와 나는 대화이다. 오강표는 을사늑약 때에 공주향교 명륜당에 들어가 대성통곡하다가 아편을 복용하여 자결을 시도했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를 구하여 자결하지 못했다. 이때부터 그는 늘 독약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경술국치 때 절명시를 짓고 崔鍾和를 찾아가 烏川驛에서 죽을 것이라 하였다. 최종화가 이곳은 선비가 죽을 곳이 못 된다고 하자 공주향교 강학루에서 목을 매고 자결했다. 그는 유학자였기에 죽을 장소를 향교를 정했던 것이고, 그곳이 도의 현장이었기에 죽음으로나마 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⁸⁴⁾

4. 결론

본고는 한말·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자결순국의 유형과 역사적 연원을 탐색했는데, 자결순국은 유교 담론과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왕조가 바뀌거나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 유교문화권에서는 자결을 통해 투쟁 의지를 드러낸 사례가 빈번하고, 자결은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아 후대에도 칭송될 정도로 면면히 이어졌다. 한말·일제강점기의 자결순국자는 대략 120여 명이며, 이들의 자결순국은 전 시대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

83) 송상도, 『기려수필』, “時風雨酷寒, 衣裳甚薄. 余曰: ‘何不著綿?’ 剛杓曰: ‘亡國之俘, 無意溫飽.’……余曰: ‘死節, 固美事, 能無悔乎?’ 剛杓曰: ‘求仁得仁, 又何悔乎?’”

84) 단식자결한 趙章夏는 죽음에 임박하여 深衣와 幅巾으로 갈아입었다. 심의와 복건은 유학자들의 평상복으로, 이를 입고 죽는 것 역시 斯道를 위한 것이다.

으로 판단된다.

한말·일제강점기 자결순국의 유형은 주로 단식, 음독, 자해, 투신,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시대의 사례가 흔치 않은 음독을 제외하고, 자결 유형의 전범이 되는 인물과 국난에 처한 유학자들이 결행했던 자결의 실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식자결은 백이와 사방득이 대표 인물로, 임진왜란 때 이양원·능성구씨, 병자호란 때 최효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신자결은 굴원과 노충렬이 대표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박지화, 김천일, 고종후 등의 자결을 거론할 수 있다. 자해자결은 왕축과 전횡이 대표 인물로, 청나라가 강화도를 함락시켰을 때 자결한 김상용, 송시영 및 이씨부인, 나씨부인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한말·일제강점기 자결순국은 역사적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자결순국자들의 언급과 행위는 다음과 같은 유교 담론과 상관성이 깊다. 첫째, 청나라 이후 중화문명의 중심을 자처하던 조선의 문화적 자존의식과 무관치 않다. 둘째, 국가의 위기에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지사 의식의 발로였다. 셋째, 의리를 실현하고 유가의 도를 보존하려는 의식의 소산이었다.

한말·일제강점기 활동했던 보수 유림을 변통을 모른 채 전통만 묵수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결순국의 주축은 보수 유림이었다. 이들은 전통을 단절한 것이 아니라 계승함으로써 국난에 대처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옹골게 실천했다. 아울러 대변혁의 시기, 전통과의 연속성이 가지는 순기능을 몸소 증명해주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자료

『論語』 『孟子』 『孝經』 『禮記』 『史記』 『宋史』 『三國史記』 『東文選』 『丹陽禹氏三世文獻錄』 『국역 조선왕조실록』 『국역 승정원일기』 『국역 치평요람』 『국역 연려실기술』 『국역 동사강목』 『江漢集』(黃景源) 『記言』(許穆) 『農巖集』(金昌協) 『亂中雜錄』(趙慶男) 『梅泉集』(黃球) 『勉菴集』(崔益鉉) 『明美堂集』(李建昌) 『樊巖集』(蔡濟恭) 『四未軒集』(張福樞) 『西河集』(李敏敍) 『碩齋稿』(尹行恉) 『性潭集』(宋煥箕) 『松沙集』(奇宇萬) 『耳溪集』(洪良浩) 『霽湖集』(梁慶遇) 『重菴集』(姜彝天) 『重菴集』(姜彝天) 『澤堂集』(李植) 『鶴峯集』(金誠一) 『寒水齋集』(權尙夏) 『響山集』(李晚燾)

2. 논저

금장태, 「V. 종교를 통한 국권수호운동·유교」,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493-542면.

김기봉, 「'노무현 신드롬'과 메멘토 모리」, 『철학과 현실』 82, 2009, 74면.

김희곤, 「안동 유림의 자정순국 투쟁」,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11, 150-159면.

朴杰淳, 「安瀾의 현실인식과 자정 순국」, 『한국 근현대사 연구』 6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81-118면.

서정화, 「易東 禹倬家の 문학 연구」, 『한문학논집』 57, 근역한문학회, 2020, 49-51면.

송상도 지음, 강원모 외 옮김, 『기려수필』 1~4, 문진, 2014.

오영섭, 『한말 순국·의열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조소양 지음, 이정원 옮김, 『유방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趙熙濟 지, 金濬 역, 『抗日독립운동을 증언한 念齋野錄』, 신아출판사, 2017.

3. 기타

『신한민보』, 1933년 10월 26일 2면 4단 “경남 함안군에 색의 단발령”.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3일 5면 10단 “상투쟁이 수난, 유림에 단발령”.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공훈록.<<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MeritList.do?goToCode=20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

【Abstract】

A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Discussions and Martyrdom

Suh, Junghwa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of suicide martyrdom that exis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Japanese Colonial Era and its historical origin, and discussed that suicide martyrdom is closely correlated to Confucian discourses.

In the Confucian culture, the will of fight was frequently demonstrated through suicide at the change of dynasty or invasion of other countries, and suicide settled as historical traditional and continued on ceaselessly as praised in later generations. There were approximately 120 suicide marty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ir suicides may be related to the tradition in the previous times.

Suicide martyrdom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Japanese Colonial Era can be categorized into fast, taking poison, self-injury, leaping to death, and other type. With an exception of suicide by poison, which was not common in the previous times, the examples of figures for suicide type and the cases of suicides that Confucian scholars facing national crisis carried out are as follows.

Classic examples of suicide by fast include Baekyi(伯夷) and Sa Bangdeuk(謝枋得), which can be found through the cases of Lee Yangwon(李陽元) · Neungseong Gu clan(綾城具氏) in Imjinwaeran War, and Choi Hyoil(崔孝一) in Byeongjahoran War. Examples of suicide by leaping include Gul Won(屈原) and No Jungryeon(魯仲連), and suicides of Park Jihwa(朴枝華), Kim Cheonil(金千鎰), Ko Jonghu(高從厚), etc. during

Imjinwaeran War may be mentioned. Examples of suicide by self-injury include Wang Chok(王蠲) and Jeon Hoeng(田橫), and cases such as Kim Sangyong(金尙容), Song Siyoung(宋時榮) who committed suicide when Qing Dynasty captured Ganghwado, and Mrs. Lee, Mrs. Na, etc. may be presented as evidence.

Suicide martyrdom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Japanese Colonial Era is in the continuum of historical tradition, and comments and actions of suicide martyrs are closely correlated to the following Confucian discourses. First, they are not irrelevant to the cultural consciousness of Joseon that professed itself as the center of Chinese civilization since Qing Dynasty. Second, they were the manifestation of patriotism to sacrifice their lives in the national crisis. Third, they were the result of consciousness to realize loyalty and preserve Tao(道) of Confucianism.

keyword : Confucian discourse, suicide martyrdom, late Joseon dynasty · Japanese Colonial Era, cultural consiousness, patriotism, preservation of Tao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